

2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012.44 (+374.10)		771.28 (+27.45)
	금리 (한국은행)		환율 (한·달러)
	3.799 (+0.041)		1337.7 (+14.0)

‘AI 해킹’ 빗썸·대신·미래도 뚫렸다

〈대신증권·미래에셋운용〉

금융권 보안 참사

대신, 3.8만 고객정보 유출
미래, 투자자 정보 유출 없어
빗썸, 회원정보 포함 가능성
금감원 “IT 보안 앞장서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이 은행·보험업권을 넘어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업계에서 빗썸,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미래에셋운용·대신증권의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격자들은 여러 금융사의 외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훔으며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찾아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열흘간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으로 위장한 신호 6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 대상에 포함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 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이 중 입출금 계좌번호와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웹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에 따른 정보 유출을 확인하



코스피 6000대 탈환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74.1포인트(6.63%) 오른 6012.44로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고 관련 경로를 차단했다. 회사 측은 “일반 투자자 정보는 유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고 유식별정보·민감정보·개인신용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빗썸에서는 전날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은 회원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유출 범위를 분석 중이다.

결과적으로 카드사 정도를 제외하고 주요 금융업권 전체가 최근 해킹 공격에 노출돼 피해가 확인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에 각각 현장 점검반을 보내 이들

금융사의 침해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도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AI 가해킹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쉽게 탐지되고 동시다발적 공격이 상시화될 것”이라며 “IT 보안은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신뢰를 위한 핵심 업무라는 인식하에 이사회가 IT 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보안 업계에서는 해

킹이 더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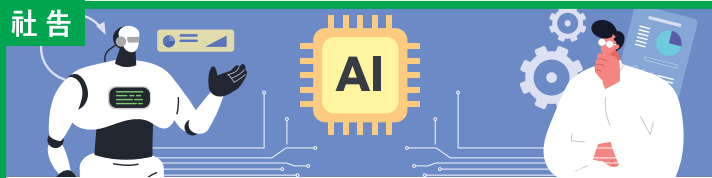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전반에 보안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북한 인터넷 프로토콜(IP)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스캔성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대량 탐지됐다고 이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를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쓰는 방식과 금융업에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퀀텀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

8년 법적 공방 마침표
1530억 배상책임 확정

정부가 엘리엇과의 ISDS 환송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촉발돼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와 엘리엇 간의 8년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추가 취소소송을 포기하면서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58억 원)에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을 합산해 총 1억 1300만 달러(약 153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

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합병안이 통과됐으나, 이후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2023년 6월 원 중재 판정부가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항소법원과 환송심을 거치며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일부 수용되기도 했으나, 지난 9월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하며 기존과 동일한 배상 책임을 명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분기매출 첫 100조… 100조 주주환원 추진

SK하이닉스, 콘퍼런스콜
3분기 영업이익 83조 38% ↑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 영향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키옥시아 투자 수익 대부분을 특별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한다. 〈관련기사 2면〉

SK하이닉스는 28일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32%, 영업이익은 3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328%, 영업이익이 632% 늘었다. 영업이익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률은 80%로 전년 동기보다 33%포인트(p) 상승했다. 순이익은 39조77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했으나 전분기보다는 58% 감소했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 D램 부문에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낸드플래시 부문에서도 321단 트리플레벨셀(TLC)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됐다. 한편 회사는 HBM4가 4분기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M15X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HBM4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는 3분기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20조원 매입을 결의했다. 배당금은 주당 2만원으로, 실적 개선을 반영한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 1만원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규남영 기자 koogjae_le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與, ‘김 여사 황제골프’ 주장 주진우 고발…“가짜뉴스로 명예 훼손” /사진 뉴시스
▲국힘 “李,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강신철 국방장관 경질해야”

▲폭격 맞은 듯 철골만 앙상…‘폐허’된 구룡마을, 합동감식 착수
▲작년 외국인 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노동자는 51만명

▲“진상규명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족 ‘분통’
▲9호선, 내달 16일부터 오전 열차 8회 증편…출근길 급행 ↑